

## 국내언론의 질병관련 위험보도에 관한 특성연구\*

-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방송뉴스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Press' Disease-related Risk Reports

- Focusing on the News Reports of Ebola Virus -

Hae Ryong Song\*\*, Hang Min Cho\*\*\*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Sung Kyun 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Korea

### Abstract

This study, targeting Ebola virus that is currently emerging as a risk issue over the world, analyzed the disease report trend of domestic broadcasting media(ground waves, comprehensive channels, and news report channels) in the level of risk communication. Specifically, report characteristics(depth of report, truth of report, coverage path of report, use of news sources in report, and directivity of report) and news frame characteristics(type of frame and content of frame)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domestic press' disease report could be found. First, the positive aspects of the domestic press' Ebola virus report were that, regarding truth of report, reports were mostly 'fact-based' reports, and regarding coverage path of report, the press tried to cover issues by itself rather than to simply use external information. Next, regarding directivity of report, directivity was not deteriorated by the dichotomous logic of 'positivity' and 'negativity', but was made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hem, and regarding type of frame, topic-oriented frame to find solutions considering the social environment was more importantly used than anecdote-oriented frame to analyze incidents in the superficial level. On the contrary, the

---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3A2044217).

\*\* The 1st author. Tel. +82-2-760-0401. E-mail. imokwg@daum.net

\*\*\* Corresponding author. Tel. +82-2-760-0401. E-mail. spes5@daum.net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 , 2015 / Revised: 5. 28, 2015 / Accepted: . , 2015

negative aspects of the domestic press' Ebola virus report were that the amount of report strongly tended to increase for specific issues(case of Ebola, spread of patients, etc.), the press focused only on fragmentary 'case(incident)' report regarding depth of report, and professional medical/science reporters rarely participated in report. In addition, use of news sources in report was mostly concentrated on domestic and foreign governmental institutes, and in the aspect of content of frame analysis, it turned out that 'risk frame' focusing on risks through the severity, statistics, and numbers of the Ebola problem was the mostly stressed frame.

**Key words:** Ebola virus, disease report, risk communication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최근 세계적인 위험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주제로 하여 국내 방송매체들(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질병관련 보도경향을 위험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도 특성(보도의 심층성, 보도의 사실성, 보도의 취재경로, 보도에 있어서의 취재원 활용, 보도의 방향성), 그리고 뉴스 프레임의 특성(프레임의 형식, 프레임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언론들의 질병보도에 대한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우리 언론의 에볼라 바이러스 보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보도의 사실성 측면에서 '사실 중심적(fact)기반' 보도들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보도의 취재경로에 있어서 외부 정보들을 단순 활용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취재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보도의 방향성이 '부정', '긍정'이 이분법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부정-긍정'의 균형성을 담보하는 중립적 방향성을 상당부분 견지했으며, 프레임 분석의 형식적 측면에서 사건을 표피적으로 분석한 일화중심 프레임보다는 발생원인, 해결책을 사회적 환경과 연관하려 찾으려는 주제중심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에볼라 바이러스 보도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은 특정한 이슈(에볼라 환자발생, 전파 등)에 보도량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강했으며, 기사의 심층성 차원에서 단면적이고 일면적인 '사건(발생)'보도에 집중이 되었고, 전문성이 높은 의학/과학기자의 보도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보도의 취재원 활용이 주로 국내외의 정부기관에 집중되었으며, 프레임 분석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에볼라 문제의 심각성, 통계, 숫자 등을 통해서 위험을 강조하는 '위험 프레임'이 가장 강조되는 프레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에볼라 바이러스, 질병보도, 위험커뮤니케이션

## 1. 서론: 문제제기

집단괴질을 유발하는 에볼라 바이러스(Ebola hemorrhagic fever)를 다룬 영화 '아웃브레이크(Outbreak, 1995)'가 개봉한지 20여년이 흘렀다. 국내에서는 질병 자체보다는 바이러스 숙주인 원숭이를 미국으로 실어 이동했던 한국국적 선박(태극호)의 한국인들을 후진국 국민처럼 다루어서 논란이 더욱 컸지만, 실제로 이 영화는 2013년 아프리카에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사태를 현재와 매우 흡

사하게 다루어 최근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다.

영화 ‘아웃브레이크’에서처럼 에볼라 바이러스는 세계 각국을 심각한 감염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013년 12월 에볼라가 발생한 이후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9개국에서 2만 4천여 명이 감염되어 이들 중 만여 명이 숨졌다. 서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스페인, 미국, 영국에서도 의료진을 포함한 3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15명이 사망하는 등 범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심각한 질병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발병원인이나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아 예방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현재 확실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신유진, 2015).

이렇게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치사율이 높은 심각한 질병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위험이슈인데, 관련정보와 지식을 전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언론이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수용자의 위기 인식이나 대응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김동규, 2002), 해당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위험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이민규·이예리, 2012). 이러한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위험이슈에 대한 언론의 역할은 사건을 보도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사건의 문제점을 예견해 주어 ‘사회적 긴장도’, ‘창조적 긴장도’를 높이는 데 일조해야 한다(Singer & Endreny, 1993).

그러나 일반적으로 질병관련 언론보도에서는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냉철하게 제공하기보다는 ‘세균’이나 ‘병원’을 수용자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존재로 구체화시켜, 수용자가 근심과 경악의 상태에서 결집하여 방어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사적 은유와 결합되어 더욱 그러한 경향은 커질 수 있다. Gwyn(1999)은 세균감염으로 인한 ‘괴사성근막염(Necrotizing fasciitis)’에 대한 보도에서 병균의 확산을 그린 지도가 사용되고 공포영화의 이미지가 추가되어 수용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Seal, 2003; 유동주, 2009).

물론 언론들의 뉴스보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충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고, 기자들도 과학정보를 제공하는 과학커뮤니케이터이기에 앞서 언론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소위 ‘상품’으로의 뉴스를 생산해야 하는 부담감을 지니고 있지만,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서 증폭될 수 있는 에볼라와 같은 질병보도에서는 ‘상품’으로서의 뉴스가치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보도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과학적이며 객관성 있는 보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우리는 광우병, 신종플루와 관련한 국내 언론보도에서 언론의 선정성, 부정확성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주제로 하여 국내 질병관련 위험보도의 특성과 의미를 위험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즉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잠재적 국가위기상황에서 언론보도의 행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한국사회의 위험정보관련 소통 및 대처 능력 향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 II. 이론적 고찰 및 기존연구검토

### 1.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미디어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 1999)은 과학기술의 무한질주가 글로벌 위험사회를 빚어냈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려면 성찰적 근대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과학에 내재된 물질적 욕망을 관리하고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곧 위험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하여 Covello, *et. al.*(1986)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을 ‘이해관련 집단들 간에 신체적·환경적 위험의 수준, 위험의 중요성이나 의미, 위험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결정·행동 또는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련 집단에는 정부기관, 기업이나 산업집단, 노동조합, 미디어, 과학자, 전문적인 직업단체,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이 포함된다. 또한 Mileti & Fitzpatrick(1991)은 위험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위험에 대해 교육 또는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고, 예방행위를 촉구하기 위해 경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영진(2000)은 ‘다양한 사회집단 간에 위험의 크기와 성격, 의미, 대응방안 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 또는 그 과정’으로 위험커뮤니케이션을 개념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할 때 위험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위험과 관련한 정보를 주고받는 차원이 아니라, 벡(Beck)이 제시한 ‘위험사회(risk society)’의 본질 중 하나인 ‘안전(safety)’과 ‘위험(risk)’의 충돌을 완화시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원자력기술, GMO를 포함한 생명공학기술, 광우병, 신종플루, 싱크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위험사안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소통주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우리 사회전반의 소통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이에 위험커뮤니케이션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 위험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로서 미디어의 역할론을 빼놓을 수 없다. 실제로 위험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은 불가피하게 우리의 관심을 미디어 특히, 현대 매스미디어의 기능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위험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보와 의견 형성이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에 대한 담론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미디어 특히, 매스미디어를 통한 위험에 대한 정보전달은 단순하게 원인과 피해정도를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위험사안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예측해 주어 사람들이 지닌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사회적으로는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위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정확하게 보도하여 위험을 둘러싼 전문영역과 사적영역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나아가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위험보도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론인 것이다.

## 2. 뉴스프레임과 위험보도

프레임(Frame)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가운데에서 특정한 관점을 선택하고 부각시켜 일차적으로 수용자의 생각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연관되는 경우 뉴스프레임은 뉴스언어에 의해 구성되어 전달되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전반적 해석, 문제성 정도, 원인 인식, 해결책 모색 등의 방향을 틀 짓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언론학 분야에서는 갈등 이슈를 다룬 뉴스 분석을 위해 프레임 개념을 사용해 왔다. 프레임은 수용자가 현실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석적 스키마(Goffman, 1974)이다. 프레임의 정위는 다양하지만 뉴스 메시지의 큰 줄기이며 메시지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해서 강조하는 것이다 (Entman, 1991).

이러한 뉴스프레임 연구의 영역에서 실제 수용자에 대한 논의로 발전한 뉴스프레이밍 효과이론은 뉴스 스토리 자체의 구성방식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또한, 뉴스프레임을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으로 구성한 Iyenger(1991)는 주제적 프레임을 접한 뉴스 수용자가 사회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사회체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회기구가 정책의 성패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으며, 일화적 프레임을 접한 뉴스 수용자가 사회정책의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개인의 일화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개인에게 정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임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보도의 프레임은 수용자의 이해와 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구성원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재난과 같은 위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보다는 언론에 의해 재구성된 정보를 간접적으로 습득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언론은 위험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강진숙, 1996; 이민규·이예리, 2012), 이러한 언론의 뉴스에서 다루는 위험이슈에 대한 프레임에 따라서 뉴스이용자의 사건 이해와 행동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실제로 GMO 위험에 대한 뉴스프레임을 주제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부정적 뉴스프레임을 접한 수용자가 긍정적 프레임을 접한 수용자보다 GMO의 안정성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고, GMO에 부정적 프레임을 접한 수용자들의 GMO섭취 거부의 행위 의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Hornig(1990)은 과학 기술적인 프레임을 접한 사람들은 과학기술적 지식의 측면에서의 통제와 위험을 생각하게 하는 반면 사회정치적인 프레임을 접한 사람들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므로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가 위험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언론보도에서 다루는 특정한 프레임에 따라서 이슈나 상황에 대한 수용자들의 위험척도가 상당한 변화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질병관련보도에 대한 선행연구

미디어가 질병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언론학과 보건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헬스저널리즘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관련보도에 대한 연구는 대중의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나 뉴스 효과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우선 국내 질병관련보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2009년 발생한 H1N1 바이러스, 이른바 신종플루를 대상으로 한 보도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룬다. 실제로 주영기·유명순(2011)은 한국 신문들의 신종플루에 대한 보도를 진단과 예후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문이 신종플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 현상에 대해 보도하면서, 예방법이나 대책 등의 ‘예후’프레임보다는, 피해 확인 중심으로 건강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진단’프레임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발생률과 뉴스 보도량의 양적인 비교 분석도 실시하였는데, 환자의 증감에 따른 보도량에는 유의미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기·유명순(2011)의 연구가 정보를 전달하는 송신자 차원에서의 연구였다면, 김옥태·김규찬(2010)은 수용자 차원에서 신종플루 보도가 대학생의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3자 효과(the third-person effect)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질병 보도가 수용자의 위험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해외에서도 H1N1 바이러스의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는데, Rachul,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H1N1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캐나다 신문 기사의 내용(content)과 톤(tone)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캐나다의 인쇄 매체들은 주로 백신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였지만, 기사가 백신의 안전이나 효과를 증명할 만한 적절한 증거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Fogarty, *et. al.*(2011)의 연구는 호주의 텔레비전 뉴스보도를 중심으로 H1N1과 같은 질병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소통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호주의 언론보도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심각성 정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주 언론이 해당 바이러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H1N1에 대해 심각하거나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종플루에 대한 분석 외에 주영기·유명순(2010)의 연구에서는 신문과 TV뉴스의 신종 출몰형 질환 및 만성질환의 보도패턴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건과 관련된 이슈는 미디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공중의 위험 관리에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러한 측면에서 미디어가 개인과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의 의제를 설정하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촉진제로서 역할을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Naidoo & Will, 2000; 주영기·유명순, 2010). 그러나 한국의 언론들은 사스나 신종플루와 같은 신종 출몰형 질환에서는 환경감시기능(surveillance)을 비교적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생활에서 실제 감염 위험이 높은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전염병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정의철(2008)의 연구에서는 에이즈의 뉴스 프레이밍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에이즈와 같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건강 문제를 뉴스미디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판적 헬스 저널리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구별되는데, 국내 언론

이 공유된 인식과 해석의 틀을 바탕으로 이미 익숙한 논의와 해석의 틀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는데, 노수진·윤영민(2013)은 우울증에 관한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울증을 다룬 언론 보도가 원인과 치료방식에 대한 제시가 거의 없고, 개인적 문제 측면에 대한 보도가 많아 수용자들에게 해당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질병 보도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대부분 보도의 양적분석을 통해 언론이 질병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질병보도에 있어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진단하는데 집중되었다. 그 결과, 질병의 확산이나 피해에 대한 보도가 많았고 언론이 질병에 있어 예방법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환경감시기능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감안할 때,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질병들이 이슈가 될 경우 관련 뉴스보도가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분석대상과 분석기간

우선 본 연구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한 국내 언론 특히, 방송사들의 보도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대표 뉴스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제로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KBS의 ‘뉴스 9’, MBC의 ‘뉴스데스크’, SBS는 ‘8시 뉴스’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종합편성채널은 TV조선은 ‘뉴스 판’, 채널A는 ‘종합뉴스’, MBN은 ‘뉴스 8’, JTBC는 ‘뉴스룸’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YTN의 ‘뉴스 10’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15년 12월 6일 서아프리카에서 첫 환자가 발병한 시기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의 뉴스를 전수 분석하였다. 뉴스 검색어는 ‘에볼라’, ‘에볼라 바이러스’의 2가지로 한정하였다.

#### 2. 연구문제 및 방법론

본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는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방송사들의 에볼라 바이러스 보도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연구문제 1-1. 보도의 심층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1-2. 보도의 사실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1-3. 보도의 취재경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1-4. 보도의 취재원 활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1-5. 보도의 방향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1)은 방송사들의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전반적인 보도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보도의 심층성, 사실성, 취재경로, 취재원 활용, 방향성 등의 유목들을 통해 국내 질병보도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문제 2) 국내 방송사들의 에볼라 바이러스 보도에 있어서 프레임 형식과 프레임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2)는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보도를 구성하는 뉴스 프레임을 형식과 내용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각 프레임의 틀을 해석하여 질병과 같은 국가적 위험사안을 언론이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매스커뮤니케이션학은 물론 모든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구방법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Kerlinger(1986)는 내용분석에 대해 ‘변수를 측정할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내용들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수량적인 방식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를 좀 더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차베근(1981)은 내용분석을 ‘메시지의 특정한 특성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누가·왜·무엇을·어떻게·누구에게 전달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 왔는가를 추론하는 문헌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추출된 뉴스의 분석에는 대학원생 4명으로 구성된 코더가 참여하였고, 코더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교육과 테스트를 마쳤다. 코더 간 신뢰도<sup>1)</sup>는 0.9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코딩이 완료된 데이터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유목

본 연구에서 다룰 분석유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한 보도의 심층성, 보도의 사

1) 코더간 신뢰도를 산출하는 방식은 홀스티(Holsti, 1969)가 제시한 일치도에 대한 백분율로 신뢰도를 구하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해 신뢰도(M=두 명의 코더 간 일치한 코딩 수, N1=코더1이 코딩한 수, N2=코더2가 코딩한 수)를 알아보았다. 실제로 내용분석에서 요구하는 신뢰도는 홀스티 지수를 사용하는 경우 0.90 혹은 그 이상이 요구된다.

$$\text{신뢰도} = \frac{2M}{N1 + N2}$$



실성, 보도의 취재경로, 취재원 활용, 보도의 방향성은 다음의 유목분류에 의거하여 분석한다.

<표 1> 보도의 특성분석(보도의 심층성, 사실성, 취재경로)

대분류/중분류		연구문제 유목	세부내용
보도의 심층성	기사 취급의 심층성	사건(발생)	환자발생, 의료진 감염 등의 단순 사건 소개
		원인(분석)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구체적 논의
		영향(분석)	해당 사건이 미치게 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영향력
		논평(주관적인 평가)	바이러스 예방, 대응 마련에 대한 언론사(기자) 혹은 전문가의 주관적인 논평 포함
	취재 기자의 심층성	의학/과학기자	의학과 과학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자(예, 의학전문기자)
		일반기자	의학, 과학분야 전문성을 지니지 않은 일반기자
		특파원	해외에 파견(에볼라 감염지역 포함)된 취재기자(의학/과학기자 아님)
	기자 없음	앵커가 단독으로 리포팅을 하는 사례	
보도의 사실성	사실 중심적	공식적인 자료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기반으로 분석	
	추측/예측 중심적	비공식 자료와 추측과 전망을 기반으로 분석	
	판단 어려움	사실 중심적, 추측/예측 중심적인지에 대한 판단불가	
보도의 취재경로	공식발표 인용	정부, 국제기관, 학계, 의료기관 등의 공식적 발표내용	
	외신 인용	해외 언론의 보도인용	
	독자적 취재	언론사가 뉴스리포트를 자체적으로 취재	
	기타	확인 불가능	

<표 2> 보도의 특성분석(취재원 활용, 보도의 방향성)

대분류	연구문제 유목	세부내용
취재원 활용	국내정부 및 지자체	대통령, 중앙정부부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국내전문가	국내의 학자, 연구원, 교수 등 에볼라 관련 전문가 집단
	세계기구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연구소 등 국제적 보건, 의학 관련 기구들
	해외정부 및 지자체	해외각국 정부, 지역자치단체(감염국, 비감염국 포함)
	세계시민 및 지역주민	해외의 감염국, 비감염국의 시민
	해외전문가	해외의 학자, 연구원, 교수 등 에볼라 관련 전문가 집단
	환자 및 가족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 환자 가족들
	해외언론	해외각국의 언론(방송, 신문사, 인터넷 언론 등)
	기업	제약회사, 헬스케어회사, 민간병원 등의 사기업
	시민단체	국내외 민간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기타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보도의 방향성	긍정	정부와 유관기관의 빠른 대처, 에볼라 관리시스템에 대해 신뢰한다는 등의 긍정적 가치판단이 지배적
	부정	정부와 유관기관의 느장대처, 에볼라 관리시스템에 대해 불신한다는 등의 부정적 가치판단이 지배적
	중립	상기의 두 논조가 지배적이지 않고 유사하게 배치됨

연구문제 2)에서는 프레임의 형식, 프레임의 내용차원의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프레임의 형식차원의

2) 각 분석유목들은 사전조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조정하고 새롭게 추가하였다.

분류는 아이엔거(Iyengar, 1991)가 제시한 일화(episodic)중심 프레임과 주제(thematic)중심 프레임으로, 내용차원의 분류는 세메코와 벨켄버그(1999)의 프레임분류인 ‘갈등 프레임’, ‘책임 귀인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에 이민규·이예리(2012), 정의철(2008)의 연구의 프레임 분류를 차용하여 연구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총 9개의 프레임을 재정리하였다.

<표 3> 프레임의 분류

대분류	연구문제 유목	세부내용
프레임 형식	일화중심 프레임	사건의 현황,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화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것
	주제중심 프레임	사건에 대한 분석보도로 사건의 원인과 배경,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의 책임을 보다 역사적, 구조적 맥락에서 찾게 하는 뉴스 보도
프레임 내용	의학적프레임	원인/증상, 검진/치료법, 의학적 발견, 새 치료법 소개, (의)과학적 접근 치중
	인간적흥미프레임	개인의 감동적 스토리, 개인에 치중하는 프레임
	책임귀인프레임	에볼라로 인한 혼란이나 피해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나,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이 있는 주체를 지목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프레임. 주요 책임 소재로는 정부(유관기관), 기업, 소비자, 기타 등이 있음
	예방프레임	예방 행동(식생활, 운동, 금연/절주, 긍정적 생활 등 예방 활동), 예방 캠페인 부각을 통한 에볼라바이러스 예방행동권고
	위험프레임	에볼라 문제의 심각성, 통계, 숫자, 경향을 통해서 위험 강조, 발생률 상황, 전쟁, 투쟁, 위험 등의 용어 사용
	갈등프레임	고소고발, 의료사고, 법적분쟁, 부정적사건, 도덕성비난 등 갈등 묘사
	사회적 프레임	에볼라를 둘러싼 건강격차, 인권, 사회구조, 정치경제 문제 강조
상업적 프레임	새로운 검진 및 치료법, 약품을 상업적 관점에서 소개, 홍보성 기사	
정책프레임	정책적 해결방안, 정부지원, 예산, 보험 등의 문제	

## IV. 연구결과

### 1. 기초분석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지상파방송사(KBS, MBC, SBS)와 종합편성채널(TV조선, 채널A, MBN, JTBC), 보도전문채널(YTN)의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보도건수의 빈도와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기간 동안 가장 많은 보도건수를 나타낸 방송사는 총 96건을 보도한 YTN(전체 보도비율의 27.5%)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JTBC(52건), MBN(44건), KBS(42건), SBS(40건), MBC(38건), 채널A(24건), TV조선(13건)의 순이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별로 특정한 보도량의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언론사별 보도량

단위: 빈도(%)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전체
42 (12.0)	38 (10.9)	40 (11.5)	96 (27.5)	13 (3.7)	24 (6.9)	44 (12.6)	52 (14.9)	349 (100.0)

보도량에 이어서 언론사별 총 보도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도시간을 초단위로 계산하여 총 보도시간을 합산한 결과, 총 보도시간에서는 앞서 언론사별 보도량이 가장 많았던 YTN이 8,113초로 가장 많은 보도시간을 할애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템 당 평균적인 보도시간은 보도빈도수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84.5초로서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아이템 당 평균 보도시간이 가장 많이 할애된 방송사는 총 104.9초의 JTBC로서 나타났다, 이어서 TV조선, KBS 등의 순이었다. YTN은 보도를 24시간 하는 채널의 특성 상 많은 뉴스폭지를 다루지만 각 아이템 당 할애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심층보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JTBC 뉴스룸'을 메인 뉴스로 편성한 JTBC가 개별 아이템 보도시간에는 더욱 많은 할애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5> 총 보도시간 및 아이템 당 평균 보도시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보도 시간 (단위:초)	총 보도시간	4,208	3,055	3,966	8,113	1,348	2,412	4,085	5,455	32642
	아이템 당 평균 보도시간	100.2	80.4	99.2	84.5	103.7	100.5	92.8	104.9	93.5

질병과 관련한 특정한 사건과 이슈에 따라서 우리 언론 보도량의 증감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에볼라 보도에 대한 월별분포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송사들이 가장 많은 보도량을 보인 기간은 바로 2014년 10월이었는데, 총 153건의 보도가 집중되었다(전체의 44.0%). 실제로 10월에는 미국본토에서 첫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국내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이 정식승인 되는 등 많은 이슈가 집중되었던 시기였다. 다음으로 106건의 보도(전체의 30.3%)가 집중된 8월에는 서아프리카 3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폭넓게 창궐하여 일반 환자는 물론 의료진들도 사망하는 등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특정이슈, 사건발생과 보도량의 관련성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퇴치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언론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일반적인 사건, 사고와 같이 취급하고 그 위험성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취재를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표 6> 에볼라 보도에 대한 월별분포

단위: 빈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2014년 7월	0 (0.0)	0 (0.0)	1 (25.0)	0 (0.0)	1 (25.0)	0 (0.0)	1 (25.0)	1 (25.0)	4 (1.1)
2014년 8월	12 (11.3)	11 (10.4)	13 (12.3)	31 (29.2)	3 (2.8)	11 (10.4)	16 (15.1)	9 (8.5)	106 (30.3)
2014년 9월	1 (4.5)	2 (9.1)	1 (4.5)	11 (50.0)	0 (0.0)	1 (4.5)	2 (9.1)	4 (18.2)	22 (6.3)
2014년 10월	21 (13.7)	15 (9.8)	15 (9.8)	40 (26.1)	5 (3.3)	9 (5.9)	15 (9.8)	33 (21.6)	153 (44.0)
2014년 11월	2 (6.1)	6 (18.2)	5 (15.2)	8 (24.2)	3 (9.1)	3 (9.1)	3 (9.1)	3 (9.1)	33 (9.5)
2014년 12월	1 (33.3)	1 (33.3)	0 (0.0)	1 (3.3)	0 (0.0)	0 (0.0)	0 (0.0)	0 (0.0)	3 (0.8)
2015년 1월	5 (17.9)	3 (10.7)	5 (17.9)	5 (17.9)	1 (3.6)	0 (0.0)	7 (25.0)	2 (7.1)	28 (8.0)
전체	42 (12.0)	38 (10.9)	40 (11.5)	96 (27.5)	13 (3.7)	24 (6.9)	44 (12.6)	52 (14.9)	349 (100.0)

## 2. 보도의 양적 특성분석

### 1) 보도의 심층성 분석

#### (1) 기사취급의 심층성

우리언론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각 방송사별로 단순하게 사건만을 전달(발생)하는지 혹은 원인과 영향력(분석)을 논의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에볼라 바이러스가 가져올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평(주관적인 평가)을 덧붙이고 있는지를 통해서 기사 심층성을 판단하였다. 실제로 에볼라 바이러스는 국지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적인 과정, 외교관계 그리고 실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내당국의 검역시스템에 대한 문제 등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결국 이러한 사안적인 복합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단면적이고 일면적인 뉴스를 가지고는 국민들이 가치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이 그 과정이 복잡하고 파장이 광범위할 것이라고 예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뉴스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실제 에볼라 보도에 대한 기사처리의 심층성에 대한 판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제 뉴스분석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보도유형은 ‘사건(발생)’으로서 전체 보도의 3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사건(발생) + 원인(분석)’이 전체의 18.6%, ‘사건(발생) + 원인(분석) + 영향(분석)’이 16.6%의 순이었다. 가장 심층적인 유형인 ‘사건(발생) + 원인(분석) + 영향(분석)+ 논평(주관적인 평가)’는 15.5%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다룬 유형은 ‘사건(발생) + 원인(분석)+ 논평(주관적인 평가)’으로서 11.5%였다. 전반적으로 지상파, 종편채널, 보도전문채널 모두 뉴스에 대한 심층성이 크게 높지 않고, 사건의 단순한 발생에 치중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심층적인 뉴스 보도 형태인 ‘사건(발생)+원인(분석)+영향(분석)+논평(주관적인 평가)’의 항목에서는 타 방송사들에 비해서 SBS가 가장 높은 보도비율을 나타내었다(SBS 전체 보도의 35.0%).

<표 7> 에볼라 보도의 기사처리에 대한 심층성 판단

단위: 빈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사건(발생)	17 (40.5)	16 (42.1)	15 (37.5)	37 (38.6)	6 (46.2)	11 (45.9)	16 (36.4)	14 (26.9)	132 (37.8)
사건(발생) + 원인(분석)	6 (14.3)	8 (21.1)	3 (7.5)	21 (21.9)	2 (15.4)	5 (8.3)	10 (15.9)	10 (27.0)	65 (18.6)
사건(발생) + 원인(분석) + 영향(분석)	8 (19.0)	7 (18.4)	5 (12.5)	13 (13.5)	2 (15.4)	2 (8.3)	7 (15.9)	14 (27.0)	58 (16.6)
사건(발생) + 원인(분석) + 논평(주관적인 평가)	5 (11.9)	4 (10.5)	3 (7.5)	13 (13.5)	1 (15.4)	3 (8.3)	5 (15.9)	6 (27.0)	40 (11.5)
사건(발생) + 원인(분석) + 영향(분석) + 논평(주관적인 평가)	6 (14.3)	3 (7.9)	14 (35.0)	12 (12.5)	2 (15.4)	3 (12.5)	6 (13.6)	8 (15.4)	54 (15.5)
전체	42 (100.0)	38 (100.0)	40 (100.0)	96 (100.0)	13 (100.0)	24 (100.0)	44 (100.0)	52 (100.0)	349 (100.0)

$\chi^2=134.212, df=8, p=.000$

(2) 취재기자의 심층성

국내 언론현장에서 과학이나 의학보도는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지닌 기자가 취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과학, 의학 분야에 정통하지 못한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다. 이로 인한 기사의 심층성 부족에 대한 비판도 높다. 따라서 실제로 에볼라 바이러스 보도에서도 기사의 심층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인 취재기자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취재를 한 기자유형은 ‘일반기자’로서 전체의 54.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현지에 파견된 ‘특파원’이 21.8%, 기자 없이 앵커 단독으로 보도한 경우가 20.1%였다. 실제로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심층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의학/과학기자’에 대한 비율은 가장 낮아서 전체의 14.0%인 것으로 나타났다. YTN, TV조선, 채널A, MBN의 경우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보도와 관련하여 ‘의학/과학기자’가 취재를 한 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SBS가 타 방송사들에 비해서 전체 보도비중에서 ‘의학/과학기자’가 취재한 비율(타 기자유형을 모두 합친 비율 중에 12.5%)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에볼라 보도에 대한 취재기자의 특성

단위: 빈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의학/과학기자	4 (9.5)	3 (7.9)	5 (12.5)	0 (0.0)	0 (0.0)	0 (0.0)	0 (0.0)	2 (3.8)	14 (4.0)
일반기자	17 (40.5)	7 (18.4)	20 (50.0)	39 (40.6)	12 (92.3)	23 (95.8)	42 (95.5)	29 (55.8)	189 (54.2)
특파원	18 (42.9)	17 (44.7)	11 (27.5)	18 (18.8)	0 (0.0)	0 (0.0)	0 (0.0)	12 (23/1)	76 (21.8)
기자 없음 (앵커 단독)	3 (7.1)	11 (28.9)	4 (10.0)	39 (40.6)	1 (7.7)	1 (4.2)	2 (4.5)	9 (17.3)	70 (20.1)
전체	42 (100.0)	38 (100.0)	40 (100.0)	96 (100.0)	13 (100.0)	24 (100.0)	44 (100.0)	52 (100.0)	349 (100.0)

$\chi^2=130.955$ ,  $df=21$ ,  $p=.000$

2) 보도의 사실성

에볼라 바이러스 보도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대단히 민감하고 과급력이 큰 주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며 사실중심적 보도 행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보도의 사실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상파, 종편채널, 보도전문채널 모두 비교적 ‘사실 중심적(fact)기반’ 보도를 내보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체적으로 ‘사실 중심적(fact)기반’ 보도의 비율이 91.4%에 달하는 것은 우리언론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보도를 내보내려는 노력을 상당부분 기울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방송사 중에서는 KBS, YTN, TV조선, 채널A, MBN이 분석된 모든 뉴스를 사실중심적으로 보도하였고, JTBC의 경우에는 추측과 예측이 포함된 보도비율이 타 방송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에볼라 보도의 사실성에 대한 분석

단위: 빈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사실중심적	42 (100.0)	38 (86.4)	40 (97.6)	96 (100.0)	13 (100.0)	24 (100.0)	44 (100.0)	52 (66.7)	349 (91.4)
추측/예측 중심적	0 (0.0)	3 (6.8)	0 (0.0)	0 (0.0)	0 (0.0)	0 (0.0)	0 (0.0)	13 (16.7)	16 (4.2)
사실+추측/예측 중심적	0 (0.0)	3 (6.8)	0 (0.0)	0 (0.0)	0 (0.0)	0 (0.0)	0 (0.0)	13 (16.7)	16 (4.2)
판단어려움	0 (0.0)	0 (0.0)	1 (2.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3)
전체	42 (100.0)	44 (100.0)	41 (100.0)	96 (100.0)	13 (100.0)	24 (100.0)	44 (100.0)	78 (100.0)	382 (100.0)

### 3) 취재경로

언론사들이 취재를 함에 있어서 실제 자사의 기자들을 활용하여 취재를 했는지, 아니면 국내외의 발표내용을 단순하게 인용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언론사들이 해당 이슈를 얼마나 심각하고 중차대한 사안으로 생각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 분석틀이 될 수 있다. 이에 에볼라 바이러스 보도에 대한 취재경로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언론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취재경로는 독자적으로 가용취재인원을 활용한 ‘독자적 취재’로서 45.4%의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공식발표인용’이 38.3%, ‘외신인용’이 15.9%의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독자적 취재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방송사는 채널A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상파에서는 KBS가 가장 독자적 취재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외신에 대한 인용 비중이 가장 높은 방송사는 MBN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국내 언론사들은 에볼라라는 중요 위험사안을 외부자료를 통해 보도하기보다는 방송사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아이টে을 잡고 취재하는 ‘독자적 취재’형식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에볼라 보도에 대한 취재경로

단위: 빈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공식발표인용	13 (31.0)	20 (46.5)	18 (34.0)	67 (48.9)	5 (38.5)	7 (29.2)	21 (32.3)	18 (28.1)	169 (38.3)
외신인용	1 (2.4)	0 (0.0)	11 (20.8)	37 (27.0)	0 (0.0)	0 (0.0)	20 (30.8)	1 (1.6)	70 (15.9)
독자적 취재	28 (66.7)	23 (53.5)	23 (43.4)	33 (24.1)	8 (61.5)	17 (70.8)	24 (36.9)	44 (68.8)	200 (45.4)
기타(확인 불가능 포함)	0 (0.0)	0 (0.0)	1 (1.9)	0 (0.0)	0 (0.0)	0 (0.0)	0 (0.0)	1 (1.6)	2 (1.6)
전체	42 (100.0)	43 (100.0)	53 (100.0)	137 (100.0)	13 (100.0)	24 (100.0)	65 (100.0)	64 (100.0)	441 (100.0)

### 4) 취재원

실제로 방송 뉴스에서 취재원을 통한 인터뷰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앵커의 소개가 방송 뉴스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기자의 리포트가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뼈대를 구성한다면, 취재원에 대한 인터뷰는 기사가 전달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하며 결정적인 자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 뉴스의 경우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인터뷰 했는지에 따라 기사 내용의 전반적인 구성이 달라지며,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파급효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보도에서도 취재원의 특성에 따라서 그 객관성, 공정성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에 에볼라 보도에 있어서 취재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취재원으로 활용된 것은 ‘국내정부(지자체)’로서 전체의 20.3%였으며, 다음으로는 ‘해외정부(지자체)’가 20.2%, WHO 등의 ‘세계기구’가 13.1%, ‘국내학계전문가’가 10.1%, ‘해외학계전문가’는 8.8%, ‘일반/지역주민’이 6.9% 등의 순이었다. 물론 에볼라와 같은 질병의 경우 범국가적인 위기로 취급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국내정부기관의 의견을 취재에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대중의 위험인식과 심각성을 폭넓게 고려할 때 학계전문가들의 의견비중을 지금보다는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11> 에볼라 보도에 취재원 특성

단위: 빈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국내정부(지자체)	10 (14.9)	13 (24.1)	12 (24.5)	23 (19.0)	5 (31.3)	4 (10.8)	15 (27.8)	13 (19.1)	95 (20.3)
국내학계전문가	6 (9.0)	4 (7.4)	5 (10.2)	6 (5.0)	2 (12.5)	10 (27.0)	2 (3.7)	12 (17.6)	47 (10.1)
세계기구	8 (11.9)	7 (13.0)	7 (14.3)	25 (20.7)	3 (18.8)	2 (5.4)	3 (5.6)	6 (8.8)	61 (13.1)
해외정부(지자체)	12 (17.9)	8 (14.8)	8 (16.3)	34 (28.1)	1 (6.3)	4 (10.8)	9 (16.7)	18 (26.5)	94 (20.2)
일반/지역주민	8 (11.9)	6 (11.1)	2 (4.1)	4 (3.3)	0 (0.0)	3 (8.1)	5 (9.3)	4 (5.9)	32 (6.9)
해외학계전문가	10 (14.9)	4 (7.4)	7 (14.3)	7 (5.8)	0 (0.0)	3 (8.1)	7 (13.0)	3 (4.4)	41 (8.8)
환자 및 가족	1 (1.5)	1 (1.9)	2 (4.1)	7 (5.8)	0 (0.0)	0 (0.0)	3 (5.6)	4 (5.9)	18 (3.9)
해외언론	0 (0.0)	0 (0.0)	1 (2.0)	5 (4.1)	1 (6.3)	4 (10.8)	3 (5.6)	2 (2.9)	16 (3.4)
기업	2 (3.0)	2 (3.7)	0 (0.0)	1 (0.8)	0 (0.0)	2 (5.4)	1 (1.9)	1 (1.5)	9 (1.9)
시민단체	2 (3.0)	0 (0.0)	0 (0.0)	2 (1.7)	0 (0.0)	0 (0.0)	0 (0.0)	2 (2.9)	6 (1.3)
없음	4 (6.0)	4 (7.4)	1 (2.0)	2 (1.7)	2 (12.5)	2 (5.4)	5 (9.3)	2 (2.9)	22 (4.7)
기타	4 (6.0)	5 (9.3)	4 (8.2)	5 (4.1)	2 (12.5)	3 (8.1)	1 (1.9)	1 (1.5)	25 (5.4)
전체	67 (100.0)	54 (100.0)	49 (100.0)	121 (100.0)	16 (100.0)	37 (100.0)	54 (100.0)	68 (100.0)	466 (100.0)

### 5) 보도의 방향성

실제로 보도의 방향성(논조)이 ‘긍정’, ‘부정’, ‘중립’이냐에 따라서 정부와 유관기관의 대처와 에볼라 대응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인식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언론들의 보도의 방향성 즉, 논조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 언론들은 대체로 에볼라 이슈에 대하여 긍정적, 부정적 시각으로 편중되지 않는 중립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립적 논조가 전체 기사의 78.2%). 아마도 이러한 보도방향성에 대한 특징은 아직 국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침투되어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언론들이 해외사례를 주로 보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언론사별로 논조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MBN의 경우 모든 보도가 중립적(1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론사 중 부정적인 논조가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난 것은 JTBC(부정적 논조가 전체 보도의 75.0%)였다.

<표 12> 에볼라 보도의 방향성(논조)

단위: 빈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긍정	0 (0.0)	2 (5.3)	1 (2.5)	0 (0.0)	1 (7.7)	1 (4.2)	0 (0.0)	2 (3.8)	7 (2.0)
부정	1 (2.4)	17 (44.7)	4 (10.0)	8 (8.3)	0 (0.0)	0 (0.0)	0 (0.0)	39 (75.0)	69 (19.3)
중립	41 (97.6)	19 (50.0)	35 (87.5)	88 (91.7)	12 (92.9)	23 (95.8)	44 (100.0)	11 (21.2)	273 (78.2)
전체	42 (100.0)	38 (100.0)	40 (100.0)	96 (100.0)	13 (100.0)	24 (100.0)	44 (100.0)	52 (100.0)	349 (100.0)

$\chi^2=166.318, df=14, p=.000$

### 3. 프레임분석

#### 1) 프레임 형식분석

앞서도 논의했지만 프레임을 현실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어떤 특정 면을 부각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수용자가 해석하고 인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기준 혹은 틀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레임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범위를 규정할 수 있음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형식적 차원에서 사건자체를 표피적으로 보도하는 일화중심 프레임(episodic)과 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해결책에 중점을 두고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사회적 환경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주제중심 프레임(thematic)의 보도수준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에볼라 바이러스의 창궐과 전염상황 등의 사건에 집중한 일화중심 프레임은 22.9%의 비율을 나타냈고, 에볼라 바이러스의 발생원인, 해결책을 사회적 환경과 연관하여 찾으려는 주제중심 프레임은 77.1%의 비율을 나타냈다. 흔히 일화중심 프레임으로 정형화된 보도들은 극적인 요소와 갈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 즉,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된 환자들의 비참함과 무기력한 의

료진의 모습, 해당 국가의 방역체계에 대한 내부적 갈등과 비판을 다루는 경우가 해당된다. 하지만, 주제중심 프레임으로 구분될 수 있는 보도들은 단순하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초래하는 사건보다는 이를 보다 사회적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에 집중한다. 따라서 에볼라와 같은 심각한 질병보도가 일화중심 프레임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를 사회적 위협으로써 사회구성원들과 세심하게 논의해야 하는 공론(公論)적 가치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석결과 국내 방송사들의 보도에서 주제중심 프레임이 높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수용자들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련한 논의들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사별로는 TV조선, 채널A가 모든 보도들을 주제중심 프레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3> 에볼라 보도에 대한 프레임 형식분석

단위: 빈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일화중심 프레임	1 (24.4)	14 (36.6)	12 (30.0)	17 (17.7)	0 (0.0)	0 (0.0)	21 (47.7)	15 (28.8)	80 (22.9)
주제중심 프레임	41 (97.6)	24 (63.2)	28 (70.0)	79 (82.3)	13 (100.0)	24 (100.0)	23 (52.3)	37 (71.2)	269 (77.1)
전체	42 (100.0)	38 (100.0)	40 (100.0)	96 (100.0)	13 (100.0)	24 (100.0)	44 (100.0)	52 (100.0)	349 (100.0)

$\chi^2=44.168, df=7, p=.000$

## 2) 프레임 내용분석

프레임의 형식적 분석에 이어서 언론들의 에볼라에 대한 뉴스보도를 내용적(주제적)차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레임 유형은 앞서 분류했듯이 ‘의학적’, ‘인간적 흥미’, ‘책임귀인’, ‘예방’, ‘위험’, ‘갈등’, ‘사회적’, ‘상업적’,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언론보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위험 프레임(전체의 38.1%)’이었다. 다음으로 ‘정책 프레임(17.2%)’, ‘의학적 프레임(11.2%)’, ‘사회적프레임(10.9%)’, ‘책임귀인 프레임(7.2%)’, ‘갈등프레임(6.6%)’, ‘인간적 흥미프레임(4.9%)’, ‘예방 프레임(3.7%)’, ‘상업적 프레임(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프레임의 내용분석 결과 ‘위험 프레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위험 프레임’이 에볼라 문제의 심각성, 통계, 숫자 등을 통해서 위험을 강조하는 프레임 유형임을 감안할 때, 우리언론이 여전히 위험보도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점(사망자 숫자 부각 등 통계적 수치를 통해 위험성 강조, 위험의 심각성에 대한 극단적 언어표현 등)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위험 프레임’을 가장 강조한 방송사는 KBS인 것으로 나타났다(KBS 전체보도의 50.0%). 방송사의 에볼라 보도에서 가장 적은 비중으로 다룬 것은 ‘상업적 프레임’(전체보도수의 0.3%)이었다. 검진

및 치료법 등을 소개하는 등의 홍보성 기사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프레임이 거의 미미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14> 에볼라 보도에 대한 프레임 내용분석

단위: 빈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의학적프레임	2 (4.8)	6 (15.8)	5 (12.5)	8 (8.3)	1 (7.7)	4 (16.7)	3 (6.8)	10 (19.2)	39 (11.2)
인간적 흥미프레임	0 (0.0)	0 (0.0)	4 (10.0)	7 (7.3)	0 (0.0)	0 (0.0)	5 (11.4)	1 (1.9)	17 (4.9)
책임귀인프레임	5 (11.9)	0 (0.0)	1 (2.5)	6 (6.3)	1 (7.7)	1 (4.2)	2 (4.5)	9 (17.3)	25 (7.2)
예방프레임	0 (0.0)	3 (7.9)	2 (5.0)	5 (5.2)	1 (7.7)	0 (0.0)	0 (0.0)	2 (3.8)	13 (3.7)
위험프레임	21 (50.0)	9 (23.7)	14 (35.0)	45 (46.9)	4 (30.8)	8 (33.3)	21 (47.7)	11 (21.2)	133 (38.1)
갈등프레임	0 (0.0)	5 (13.2)	1 (2.5)	4 (4.2)	3 (23.1)	0 (0.0)	5 (11.4)	5 (9.6)	23 (6.6)
사회적프레임	13 (31.0)	4 (10.5)	2 (5.0)	2 (2.1)	2 (15.4)	11 (45.8)	1 (2.3)	3 (5.8)	38 (10.9)
상업적프레임	0 (0.0)	1 (2.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3)
정책프레임	1 (2.4)	10 (26.3)	11 (27.5)	19 (19.8)	1 (7.7)	0 (0.0)	7 (15.9)	11 (21.2)	60 (17.2)
전체	42 (100.0)	38 (100.0)	40 (100.0)	96 (100.0)	13 (100.0)	24 (100.0)	44 (100.0)	52 (100.0)	349 (100.0)

$\chi^2=147.971$ ,  $df=56$ ,  $p=.000$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국내에 아직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증폭될 수 있는 위험사안을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대중들이 위험사안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지와 영상을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인식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뉴스를 대상으로 하여 위험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우리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에볼라 바이러스 보도에 대한 기초적 분석 결과, 총 보도건수는 1년여의 분석기간 동안 349건으로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보도시간도 93.5초로서 짧은 편이었다. 이는 국내에 아직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여파가 크지 않다는 것(예컨대, 국내 환자발생 등의 위급상황은 없었음)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특정이슈의 발생이 언론사들의 기사 숫자의 증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실제로 환자숫자의 증가, 서아프리카에서 타 국가로의 에볼라 전염확산, 국내의료진 파견 등의 특정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보도량이 증가(실제로 2014년 8월과 10월의 보도가 전체 보도의 74.3%를 차지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완전하게 질병이 퇴치된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발병가능성도 있는 위험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언론이 에볼라 바이러스뉴스를 일반적인 사건, 사고와 같이 취급하고 장기적이며 심층적인 취재에는 여전히 미흡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둘째,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보도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언론들이 단순히 사건발생을 보도하는지, 아니면 원인과 영향력 그리고 주관적인 평가를 보도에서 논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에볼라환자 발생, 확산 등의 특정한 사건에 치중한 '사건(발생)'에 대한 보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상파, 종편채널, 보도전문채널 모두 동일하였다. 실제로 미디어수용자들이 해당 의제에 대해서 복합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단순한 소개뿐만 아니라, 원인과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주관적인 논평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우리 언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취재기자가 지니는 심층성(기자의 전공분야, 전문분야가 무엇인지)을 분석한 결과, 에볼라 보도를 가장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의학/전문기자의 활용비율은 언론사들 모두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기자가 리포팅을 하거나, 기자의 취재 없이 앵커가 단독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보도가 사실에 근거했는지, 추측/예측에 근거했는지를 통해 에볼라 보도의 사실성을 판단한 결과, 해당분석기간에 언론보도의 사실 중심적 보도비율이 91.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측이나 예측에 근거하여 보도를 내보낼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언론보도의 경향성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넷째, 보도를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외부의 정보를 베끼는 관행이 지속되었는지 혹은 언론사의 취재역량을 동원하여 직접 취재를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독자적인 취재의 비율이 45.4%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기관(정부 등)의 발표나 외신의 보도를 인용할 경우 보도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적인 취재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취재원의 활용에 대한 분석결과 취재원은 국내정부와 해외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외 정부의 합계는 전체의 40.5%). 이는 곧 정부에서 내놓은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들(보도자료, 연구자료 등)에 우리언론들이 크게 의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취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취재원 활용도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부 취재원에 대한 집중은 기사에 대한 심층성을 상당부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섯째, 보도방향성이 긍정, 부정, 중립적인지를 확인한 결과, 우리언론의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보도는 상당히 중립적 성향(전체의 78.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에볼라 바이러스가 국내에 침투되어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 예견되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프레임에 대한 분석은 프레임의 형식차원, 프레임의 내용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우선 프레임의 형식차원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사건을 표피적으로 분석한 일화중심 프레임보다보다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발생원인, 해결책을 사회적 환경과 연관하려 찾으려는 주제중심프레임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고민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총 9개로 구분한 프레임('의학적', '인간적 흥미', '책임귀인', '예방', '위협', '갈등', '사회적', '상업적', '정책')의 내용분석 결과 에볼라 문제의 심각성, 통계, 숫자 등을 통해서 위협을 강조하는 위협프레임이 가장 높은 비율(전체의 38.1%)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위협을 수용자들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위협프레임에 입각한 보도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으나, 극단적 언어표현, 사망자숫자의 지나친 과장 등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들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보도에 대한 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볼라와 같은 심각한 사회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슈에 대해서 우리언론 특히, 대중들에게 영향력과 파급력이 여전히 큰 매스미디어인 방송(텔레비전)의 보도경향을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울리히 벡(Ulrich Beck, 1999)이 논의했듯이 이제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동일하게 고민해야 하는 탈 경계의 '글로벌 위험사회'로 수렴하고 있다. 특히 사스, 신종플루 그리고 에볼라까지 이제는 세계 각국이 같이 고민하고 대응해야 하는 글로벌 차원의 질병위험들이 그 위험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대응의 중요한 정보원이며, 위험상황을 예측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디어의 보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선형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은 향후 에볼라와 같은 심각한 질병이 유행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험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연구결과들을 통해 우리언론의 질병보도에 대한 준칙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언론보도는 에볼라와 같은 확산이 빠른 위험질병을 일반적인 사건, 사고와 같이 다루는 경향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이미 신종플루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들에서 경험한 바 있으며, 향후 신속한 '예방'과 '대응'을 목표로 하는 위험보도의 영역으로서 질병보도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기사취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의학전문기자 혹은 과학전문기자에 의한 심층취재가 늘어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질병보도는 질병의 전염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점을 예견해 주어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긴장도', '창조적 긴장도'를 높여 확산을 막는데 기여해야 한다. 질병의 확산이라는 위험상황 발생 시 국내언론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국가기관과 함께 위기대응기관으로서 막중한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는 바, 우선 국내 방송매체만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했는데, 에볼라와 같은 글로벌한 위험이슈에서는 해외의 방송매체의 보도특성을

비교분석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방송매체들(에볼라 발생지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보도분석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둘째, 매체적 성향과 보도특성이 상이한 방송사와 신문사의 비교를 통해서 각각의 특징을 상호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추후 주요 방송사와 일간신문들의 보도분석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방송매체에 대한 분석인 만큼 영상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험보도에 있어서 뉴스의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용자들의 위험인식과 위험에 대한 태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행되지 못했던 영상관련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아직 에볼라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어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예방차원의 보도지침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다만, 2015년 5월 중동지역에서만 환자가 발생하던 메르스(MERS-CoV)바이러스 환자가 국내에 발생한 것을 감안한다면 예방차원의 사전적 연구로서 그 가치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향후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심도있게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동규. 2002. 한국 언론의 위기보도, 그 실상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15(1): 139-156.
- 김옥태, 김규찬. 2010.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가 대학생의 예방위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6): 384-484.
- 노수진, 윤영민. 2013. 우울증에 관한 언론 보도 분석: 온라인 뉴스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61: 5-27.
- 소영진. 2000. 위험 의사소통의 제도화 방안. 사회과학. 39(2): 27-63.
- 신유진. 2015. 에볼라 바이러스 등 최근 10여년 간에 발생했던 바이러스 질병과 그에 관한 연구 동향. BRIC View 동향리포트. 1-11.
- 이민규 · 이에리. 2012. 국내 신문의 가축 전염병 위험 보도에 대한 프레임 연구: 중앙지와 지역지의 구제역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2): 378-414.
- 정의철. 2008. 에이즈 뉴스 프레임 분석: 비판적 헬스저널리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4): 225-249.
- 주영기, 유명순. 2010. 신문·TV 뉴스의 신종 출몰형 질환 및 만성질환 보도 패턴 분석. 한국언론학보. 54(2): 363-443.
- 주영기, 유명순. 2011. 한국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 연구: 진단과 예후 프레임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5): 30-54.
- 클라이브 실 지음, 유동주 옮김. 2009. 미디어와 건강. 서울: 한울아카데미.

- 차배근. 1981.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 세영사.
- Andrea S. Fogarty, K. Holland, M. Imison, R. W. Blood, S. Chapman, and S. Holding. 2011. Communicating Uncertainty - How Australian Television Reported H1N1 Risk in 2009: A Content Analysis. *BMC Public Health*. 11(1). 1-8.
- Beck, U. 1999. *World Risk Society*. Polity Press.
- Covello, V. T., D. von Winterfeldt, and P. Slovic. 1986. Risk Communi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Risk Abstracts*. 3: 1-14.
- Cristen M. Rachul, N. Ries, and T. Caulfield. 2011. Canadian Newspaper Coverage of the A/H1N1 Vaccine Program. *Quantitative Research*. 102(3). 200-203.
- Entman, R. B.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 6 - 27.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Harper and Row, NewYork.
- Gwyn, R. 1999. “‘Killer Bugs’, ‘Silly Buggers’ and ‘Politically Correct Pals’’: Competing Discourses in Health Scare Reporting.” *Health*, 3(3): 335-345.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rlinger, F. N. 1986. *Foundation of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Mileti, D. S. and C. Fitzpatrick. 1991. Communication of Public Risk; Its Theory and Its Application. *Social Practice Review*. 20-28.
- Singer, E. and P. M. Endreny. 1993. *Reporting on Risk : How the Mass Media Portray Accidents, Diseases, Disasters, and other Hazard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Valkenburg, P. M., H. A. Semetko, and C. H. de Vreese. 1999. The Effects of News Frames on Readers’ thoughts and Recall. *Communication Research* 26(5): 550-568.

---

**송해룡:**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원광대학교 교수, KAIST 대우교수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처장, 언론정보대학원장을 지냈으며, 한국방송학회장을 역임하였다. 2015년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을 맡고 있다. 위험사회와 위험인식(2014), 디지털미디어시대 리스크 현실과 진단(2014, 공저), 위험거버넌스와 위험커뮤니케이션(2013),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제(2013, 공저), 위험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공론장(2012), 미디어비즈니스 시장과 생태계(2010), 위험 인지와 위험 커뮤니케이션(2009, 공저) 등의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imokwg@daum.net).

**조항민:**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SSK 위험커뮤니케이션 연구단 전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사회의 위험커뮤니케이션과 과학저

널리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중이며, 과학기술, 미디어와 만나다(2014), 디지털미디어시대 리스크 현실과 진단(2014, 공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위기관리 전략(2008, 공저) 등의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과학기술부장관상(2004), 문화부장관상(2005), 보훈처장상(2005) 등을 수상했다(spes5@daum.net).